



◇광주 증심사 일대에 문화공간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구축된다. 사진은 지난해 증심사 앞 문화미당에서 열린 '풍경소리' 음악회.

생태보존+불교문화

증심사 일대 문화인프라 구축

일철스님, 각계인사와 각종프로그램 계획

광주 증심사 일대에 생태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문화인프라가 구축된다.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을 비롯해 임의진 목사(강진 남부교회),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인 본부장, 정원재 광주중앙여고 교장, 이계표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 김영섭 생명나눔실천회 사무국장 등 문화관계자 10여명은 지난

2월 17일 증심사 행원당에서 모임을 갖고 증심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증심사 일대의 집단 상업시설 정비와 생명나눔을 위해 매달 음력 15일에 개최해 온 풍경소리 음악회 활성화, 생태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증심사 문화학교 개설, 무등산 패키지 불교문화답사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의 초점은 풍경소리 음악회에 맞춰졌다. 지난해 7월부터 종교간의 화합과 생태보존 운동의 취지로 열리고 있는 풍경소리 음악회는 증

심사가 주축이 되고 있지만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회 등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할 정도로 3개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일조하고 있다. 외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벌써 입소문을 타고 4백명 이상이 몰려오는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달에는 20일 증심사 앞 문화광장에서 통기타 가수들과 불교합창단이 출

풍경소리음악회 범종교적으로 진행

문화학교·무등산 불교문화답사 추진

연해 공연을 연다.

매달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이는 이들을 위한 증심사 문화학교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과 생태 보전, 전통문화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는 증심사 답사 프로그램도 문화학교를 통해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음악회가 열리는 무등산 문화광장에 가족단위로 꽃과 나무도 심게해 쉼터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증심사는 이번

달부터 금강문과 사천왕상 복원, 석조입상 보호각 설치, 오백전 해체수리 복원 등 대대적인 도량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철 스님은 "매달 음악회를 보기 위해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종교를 떠나 문화적 유대감과 환경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소모임 성격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주 무등산 특히 증심사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 있는데도 이 일대 문화와 관광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과 불교의 전통·현대문화가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증심사 도량을 정비해 내실 있는 답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시민 무등산 팅 1평 갖기 운동과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지어 정년퇴임한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종교를 초월해 치료도 받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음악 현대인 심신치료 탁월”

보건학 박사학위 받은 불자가수 김태곤씨

“불교음악과 같이 곡선의 운율이 흐르는 음악은 현대인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명악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과 치료의 대체의학으로 ‘음악 치료(music therapy)’가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 수준이예요. 대중가수로서 현대인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어떤 음악이 좋은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인체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20일 경북 경산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불자가수 김태곤씨(53, 불교의 맑은 정신세계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송학

사’를 만들어 불렀을 정도로 김씨는 이미 수년전부터 음악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왔다. 특히 요즘 범람하는 ‘국적 불명’



‘무애가’ 등 명상음악 10곡 콘 출시

이번 논문에서 김씨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감상시간 등이 사람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속도감 있는 음악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아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 민속음악과 불교음악은

의 직선적인 리듬이 현대인들의 심신과 생체리듬을 깨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지난 1998년 곡선적 리듬에 근간을 둔 한국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의 뿌리를 연구하기 위해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과 서울 불원사 부설 범음대학에서 3년간 공부했다.

세계에서 드물게 3박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2·4박자풍의 서양 리듬은 우리 민족의 몸엔 박자와 부조화를 일으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 백병원에서 98년부터 2년동안의 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클래스’를 열기도 했던 김씨는 나웅선사의 계승을 한호흡으로 노래한 ‘무애가’를 비롯해 석굴암 부처님을 그린 ‘해를 바라보는 남자’ 등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도와주는 노래 10곡이 수록된 앨범 ‘가을’을 제작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불교음악과 현대적 선율과의 접점을 찾아 듣는 이들이 심신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명상, 태고, 심신치료 음악 제작에 전념을 쏟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대중적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각오속에 음악에 대한 진한 열정이 느껴진다. 김주일기자



클라우드게이트 댄스시어터가 이번 내한 공연에서 선보일 작품 ‘행서’ 역동적이고 절제된 내공의 힘이 느껴진다.

대만 ‘클라우드 게이트 무용단’ 내한공연

참선·명상 통한 내공의 춤사위 현대 서구무용기법으로 표현

검은 드레스의 소매를 활달하며 마치 명필이 일필휘지를 써내려가듯 추는 춤. 아시아 현대무용단으로는 드물게 세계무대에서 정상급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인 클라우드게이트(56)이 이끄는 무용단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시어터’가 7-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73년 창단된 이 무용단이 대만은 물론 구미 관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아시아의 전래신화와 민속을 소재로 다양적 미학을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몸짓으로 표출해

내는데 있다. 특히 참선과 명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내공의 춤사위를 서구식 무용기법에 결합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공연 작품은 ‘행초(行草)’다. 행서와 초서 등 서예 기법을 춤에 적용시켰다. 서예가들이 글씨를 쓸 때 모든 정신 에너지를 집중된 무아지

통일문화연대, ‘물고’ 창간 북 단청지원 등 뉴스담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4개 종교단체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일문화연대가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을 지향하는 격월간지 <물고> 창간호(1·2월호, 비매품)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법전 조계 종정의 축사를 비롯해 교황비오

로 2세의 2003년 평화의 날 메시지 ‘지상의 평화-영원한 과업’에 대한 해설과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의 메시지, 불교계 북한 사람 단청지원과 진각종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등에 대한 불교계 뉴스담이 실려 있다.

최홍준 한국평협 사무총장은 “남북 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의 갈등들을 풀어내는데 일조하자는 취지에서 잡지 이름을 ‘물고’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방송 프로그램

| | |
|-----------------|-----------------------|
| BBS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ch 32> |
| 06:05 교리강좌 | 6월 20:30 차문화산책 |
| 08:30 라디오 열린미당 | 7월 09:30 구본일의 명상음악 |
| 12:20 백팔가요 | 8월 12:30 32스페셜 |
| 17:10 무명을 밝히고 | 9월 15:10 서용대종사 특별법문 |
| 23:05 불교문화산책 | 10월 13:20 알기쉬운 기초교리강좌 |
| 01:00 젊은 그대에게 | 11월 12:40 영성나르바나 |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 불교문화산책 - 전문가들로부터 불교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으로 중앙대 부총장 박범훈 교수가 불교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적, 소, 팔방지우’ 등 경전에 나타난 다양한 악기에 얽힌 이야기와 불교음악의 전래와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 불교텔레비전: △ 차문화 산책 - ‘현대의 차사발’ 편에서는 한국적인 토양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강한 성격을 지닌 도자기를 추구해온 도예가 신현철 씨와 소설가 정동주 씨가 차와 차사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옛 서민들이 쓰던 막사발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신현철 씨의 다완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본다.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 ④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3.4cm x 24cm
- ⑥ 식물성 생대 - 지름 3.4cm x 22.5cm
- ⑦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 ⑧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② 상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 연두, 전사지-연화,반야심경,무지개)
- ⑦ 클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 ⑧ 돈타레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 ① 1.8cm x 12.5cm 등초 소(1봉 20)
- ② 2cm x 12.5cm 등초 대(1봉)
- ③ 연화 3호
- ④ 비름막이 중
- ⑤ 연화 2호
- ⑥ 비름막이 대
- ⑦ 연화 1호
- ⑧ 비름막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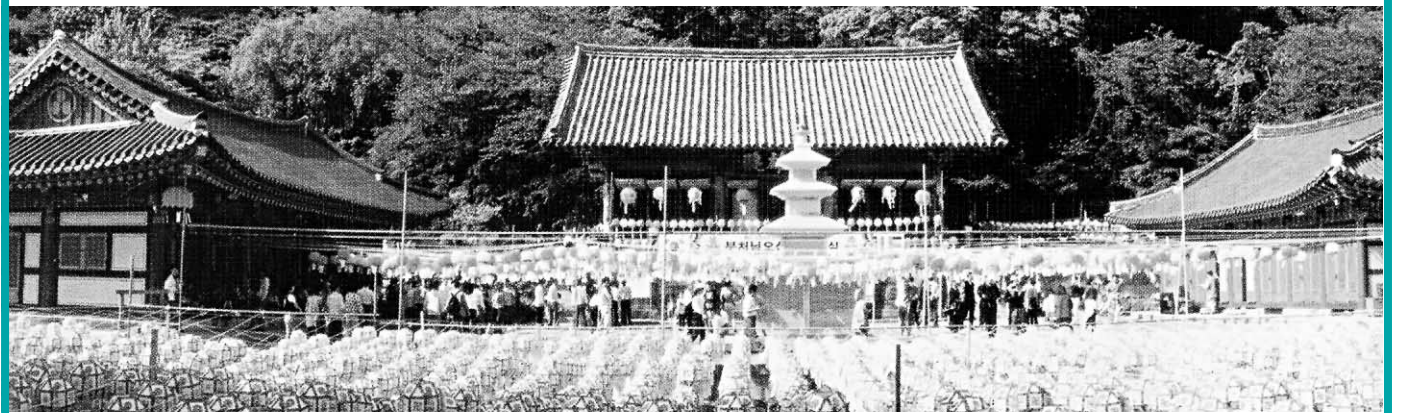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령리 35-16 전화: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 T형 일체식 케이블**
-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 ◆ 편리성 - 연동고리가 있어 연동 설치가 용이합니다.
 - ◆ 일체성 - 접촉 불량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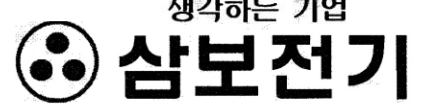
외부용 [연결고리]

-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축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특수재료로 내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